

좋은 리포트와 좋은 글쓰기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조교수

관례적으로 ‘리포트’로 통칭되는 글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포괄하는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aper로, 학기말에 제출하는 것은 term paper”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전에는 “리포트(report) ①조사나 연구, 실험 따위의 결과에 관한 글이나 문서. ②학생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소논문(小論文). ‘보고서’로 순화”라고 나와 있으므로 ‘리포트’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리포트의 원래 의미에 가까운 번역어인 ‘보고서’라는 말이 “학생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소논문”이라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영어의 paper는 대체로 ‘문서 혹은 문건’으로 번역할 수 있을 의미를 포괄하고, 그 중 하나로 “a piece of written schoolwork”를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서 리포트를 ‘글쓰기 과제(물)’로 바꿔 쓰면 어떨까? ‘글쓰기’라는 말은 ‘글쓰기교실’의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이다, 아니다의 구분 이전에 ‘글쓰기 과제’란 말이 마치 ‘글쓰기를 위한 과제’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좋은 리포트란 글쓰기 자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화된 학습(연구)을 위한 과제물만도 아니며, 따라서 그 둘이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가령, 글쓰기교실의 리포트 상담 신청 구분에서는 “서평, 요약, 조사연구, 논술식 리포트, 기타”와 같이 리포트의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그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라 해도 실제로 요구되는 리포트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조사연구와 논술식 리포트인데, 이 두 유형은 리포트가 학습을 위한 과제물(writing to learn)인가, 글쓰기를 위한 과제물(learning to write)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요컨대, 리포트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볼 때, 조사연구의 경우는 학습을 위한 과제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논술식 리포트의 경우는 글쓰기를 위한 과제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조사연구와 논술식 리포트라는 두 유형의 글을 살펴볼 때, 우선 둘 사이의 구분이 생각보다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사’와 ‘논술’이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조사’를 위주로 할 경우에도 ‘논술’의 요소, 즉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답을 하는 형식이 글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논술’을 위주로 할 경우에도 문헌조사든 설문조사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목의 해당 전공이나 영역(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과 기술 등)에 따라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조사와 논술의 비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리포트가 조사연구에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논술식 리포트에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조사연구’와 ‘논술식 리포트’라는 구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논술식 리포트에 조사가 빠질 수도 없고, 조사연구에 논증을 위한 연구문제 설정이 빠질 수도 없는데, 전자는 마치 대학입시 논술처럼 ‘~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명제나 ‘~일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일관된 상식적인 주장만 나열하면 된다는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문헌 조사만 해서 발췌, 짜깁기하면 된다는 오해가 적지 않게 퍼져 있다.

[논술식 리포트의 예]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첨단과학시대인 현대에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논리적, 과학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현실에서 만들어낸 과학적 이론과 실천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과학적, 논리적 활동이 다시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낳는다. 결국 인간의 이성, 경험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같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어 합리화시키기 위해 인간은 예로부터 종교생활을 하며 종교적 지혜를 추구하여 왔을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반적 지혜나 철학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삶의 비전 등을 종교적 지혜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은 남들보다 훨씬 더 굴곡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보다 훨씬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도 많았고 부모님께서 내게 별 신경을 안 쓰셔서 공부도 고2 때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별로 하지 못해 성적도 떨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다.

예컨대 “종교적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관련된 논술식 리포트의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다. 물론 대상이 종교적 지혜인 만큼,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예로 드는 것이 꼭 잘 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거가 필요한데(논거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논술식 리포트를 조사·연구와 무관한 글쓰기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조사연구의 예]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급성 간염 증상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오한이 나고 열이 나면서 시작된다. 그러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구토증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며 복통, 설사가 오기도 한다. 급성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간세포가 급격히 파괴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하면 AST와 ALT수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 며칠 후에는 황달도 생긴다. 황달이 나타나기 2~3일 전에는 빌리루빈이 피하에 쌓이면서 피부가 가려운 증상도 나타나며 소변색은 붉어지고 대변색은 하얗게 변하기도 한다. 무반응인 경우도 있다. 급성 B형 간염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약 5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7일의 전구기를 겪는다. 이 기간 동안 미열이 있고 윗배가 불편하거나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을 느끼고 술이나 담배를 즐기던 사람들은 그 맛을 잃게 된다. 심한 무력감과 괴로움도 동반된다. 혈청 내 항원과 항체 반응도 이 때 일어나 열이 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전구기가 지나면 소변이 진해지는 반면 대변색은 옅어지고 황달이 나타난다. 식욕은 좀 나아지고 구역질, 구토 등도 사라진다. 대신 가려움증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되고 간이 붓는 증세가 관찰된다. 회복기에 들어서면 황달이 사라지고 대변색은 정상이 되며 식욕도 평소와 같아진다.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위의 예문은 “간염의 원인 및 기전”이라는 주제의 조사 보고의 일부이다. 이 역시 주제가 글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사전 등의 참고문헌에서 찾은 내용 일부를 옮겨 적는 것만으로 좋은 리포트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종류의 글은 시험공부를 위한 요약·정리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독립된 글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를 글쓰기를 위한 것으로 보느냐, 학습(연구)을 위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결국 학술적 글쓰기라는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인다. 통상적인 의미의 글쓰기와 달리 학술적 글쓰기는 연구 활동의 일부이자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식 리포트의 경우, 예컨대 대학입시 논술처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만을 가지고 글을 쓰기보다는 주제에 적절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논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은 서평이나 감상평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조사연구의 경우에도 단지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조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해 과연 어떤 연구문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논증을 형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연구(학습)와 글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활동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

구분	세부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	사회계열: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인문계열: 문학 / 역사학 / 철학 논문 작성법
외국인 학생 대상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한국어 논문 작성의 실제

[시기] 4월, 10월 (매학기 1회 개최)

[신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주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